

한은 금통위 13일 금리결정 향방은?

'5월 연 1.5% 동결' 전망 우세... 정부와 정책공조 차원에서 6~7월 금리인하론도 제기

5월 기준금리의 향방이 결정되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론'이 뜨거운 논쟁으로 부각된 시점인데다,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 4명이 처음으로 금리결정에 참여하는 금통위이기 때문이다.

부진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춘 한은이 이번달 금리를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 안팎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연 1.50%로 묶여있는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이라는 한은의 정책적 이슈가 떠오른 가운데 새 금통위원 4명의 취임 후 첫 금리조정, 금리인하 실효성 문제, 기계부채 부담 등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서다.

특히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대외 경제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한은이 국내 경제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중을 대비해 금리인하 여력을 비축해 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 움직임이 있지만 확실한 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금리인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금통위원 4명이 새로 온데다 상황적으로 예민한 국면인 만큼 이번달은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와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상반기까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기로 합의한 만큼 방안에 앞서 금리인하가 선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을 고려할 때 이달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신중론이 나오는 분위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정책은 정책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구조조정 과정도 고려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경기가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은이 '총대'를 메고 선제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미국 등 대외 경기방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구조조정을 돕고 경기 하방을 미리 방어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되거나 6~7월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에 대한 가다다 잡히면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 한은이 금리인하로 뒷받침하고 나설 수 있다는 이유다.

박성우 NH선물 연구원은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의 구조조정 방향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어떻게 될지 구체화된 이후 사용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6월 정도에는 한은이 정부와의 정책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공동탁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금통위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정도만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금리인하는 6~7월에 가능할 것"이라며 "정책공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아이폰SE 64GB, 지원금 받아도 60만원대

애플이 10일 중저가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아이폰SE'의 출고가는 16GB 56만9800원, 64GB 69만9600원으로 책정됐다. 아이폰 사용자 사이에서 메모리가 작은 16GB는 인기가 없다는 점에서 64GB 기준으로 보면 아이폰SE는 출고가가 70만원에 달하는 '고가 보급형 스마트폰'이다.

공시지원금(일명 보조금)은 약정 요금제에 따라 3만~12만원 선이다. 고가 요금제를 쓸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지만 아이폰SE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가격이 프리미엄폰과 큰 차이가 없어 중저가 폰으로 분류하기 애매한데다, 아이폰 마니아라면 4~5달 기다려 오는 가을에 나올 아이폰7을 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폰

이용자는 5만~6만원대의 요금제를, 중저가폰 이용자는 2만~3만원대 요금제를 주로 쓰는데 아이폰SE는 고객층이 모호하다"며 "국내 중저가폰 시장이 탄탄한 상황에서 아이폰SE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SE는 애플이 2013년 아이폰5c 이후 선보인 보급형 모델이다.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을 주력했다. 디자인은 2014년 나온 아이폰5s와 같고 주요 성능은 지난해 아이폰6s 수준으로 만들었다.

4인치 작은 크기로 손에 쏙 들어가는 디자인, 아이폰6s의 1200만 화소 카메라, 4K 동영상 촬영 등의 기능을 담았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로즈 골드 등 4가지다.

/안진수 기자

유명 레스토랑 대표 메뉴를 반값에

'현대카드 고메워크' 27일~내달 2일 서울 60곳 · 부산 15곳

현대카드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유명 식당의 대표 메뉴를 50% 할인해 '현대카드 고메워크 18'을 연다. 이 기간 동안 현대카드 플래티넘 이상급 회원들은 서울과 부산 유명 레스토랑에서 대표 메뉴를 5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레스토랑은 서울 청담, 서래마을, 가로수길, 이태원, 광화문 등지에 자리한 60곳과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센텀시티 등의 15곳이다.

기존 참여점 중 '라짜브어', '엘븐더 테이블' 등 고객만족도가 높았던 레스토랑을 재선정했다. '엘T 스테이크', '키오쿠' 등은 새로 넣었다.

올해부터는 현대카드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미리 예약해야 한다. 레스토랑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다른 참가자들의 참여 기회를 빼앗는 '노쇼'(No-show)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메뉴 확인부터 예약시간과 좌석 선택, 예약보증금 결제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은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트위터(@HyundaiCard), 페이스북(www.facebook.com/Hyundaicar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진수 기자

친환경차 '쌍쌍'

디젤 · 가솔린 판매 줄고 하이브리드 · 전기차 늘어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신규 등록된 수입차 중 디젤(경유) 차량의 비중은 63.5%로 가장 높았지만, 판매량은 1만133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가솔린 차량도 5093대를 기록해 12% 감소했다.

반면 친환경차의 판매량은 증가했다. 하이브리드는 1394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06% 늘었고, 전기차는 지난해와 비슷한 20대가 팔렸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서 7.9%로 두 배 늘었다.

올해 1~4월 누적 판매량에서도 디젤 차량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68.4%에서 67.4%로 소폭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서 5%로 상승했으며 판매량도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아우디가 처음으로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인 '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

을 선보였고, 토요타도 하이브리드 '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 '렉서스RX 450h', '라브4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는 등 신모형을 잇따라 내놓고 마케팅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산 차량 상황도 비슷하다. 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니로'는 지난 4월 2440대가 팔리며 선전하고 있다.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4월 각각 1309대, 1233대 판매되며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르노삼성차의 전기차 'SMB EV'도 90대 판매해 전월보다 40대 늘었다.

이런 가운데 업체들의 친환경 차량 출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오는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한국GM은 전기 자동차 차세대 볼트를 6월 처음 선보인다.

BMW는 오는 6월 열리는 부산국제모터쇼에서 PHEV 모델인 '뉴 X5 xDrive40e'와 '뉴 330e'를 선보일 예정이다.

/안진수 기자



10일 오전 서울 중구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모델들이 준중형 세단 '뉴 아우디 A4'를 선보이고 있다.

아우디, 신형 A4 8년 만에 '풀체인지'

9세대, 커지고 무게 가벼워져

아우디코리아가 10일 준중형세단인 A4를 8년만에 완전변경한 신형 모델을 출시했다.

9세대 모델인 신형 A4는 기존 모델보다 차체는 더욱 커진 반면 경량소재 혼합공법과 경량설계 적용으로 최대 100kg까지 감량해 가벼워졌다. 또 기존 모델 대비 전장은 25mm, 전폭은 16mm, 실내 길이는 17mm 늘어났다.

이번에 선보인 차종은 '뉴 아우디 A4 45 TFSI'와 '뉴 아우디 A4 45 TFSI 콤팩트' 등 두 가지로 모두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7단 S트로닉 듀얼클러

치 변속기를 탑재했다.

우선 이들 가솔린 차종만 먼저 출시하고 이후에 디젤 차종을 수입·판매할 예정이다.

A4 45 TFSI는 기본형, 프리미엄, 스포트 등 3가지 라인으로, A4 45 TFSI 콤팩트로는 프리미엄, 스포트 등 2가지 라인으로 판매된다. A4 45 TFSI의 복합연비는 1당 12.5km, A4 45 TFSI 콤팩트의 복합연비는 1당 11.6km다.

가격은 A4 45 TFSI 4950만원(이하 부가차세 포함), A4 45 TFSI 프리미엄 5290만원, A4 45 TFSI 스포트 5690만원이다. A4 45 TFSI 콤팩트 프리미엄은 5590만원, A4 45 TFSI 콤팩트 스포트는 5990만원이다.

/안진수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 기관에 불이익"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삭감하는 등 보수, 예산정원을 등에 대한 불이익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란 국민의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은 성과중심 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별 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루어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화를 정리해야 한다"며 "두 기관은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하다해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행은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만큼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돼야 한다"며 "321개 공공기관 중 직원 연봉 순위 1위인 여타결제원도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수 등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